

## SPORTS

2025년 9월 19일 금요일

‘팔꿈치 부상’ KIA 네일, 시즌 아웃  
단순 염증 소견... 1군 엔트리 말소

KIA타이거즈 ‘에이스’ 제임스 네일이 시즌 아웃 수순을 밟게 됐다. 팔꿈치 염증 증세로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된 것.

KIA는 18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Bank KBO리그 한화이글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네일을 1군에서 말소, 장재혁을 1군에 등록했다.

네일은 지난 17일 구단 지정병원 선한병원에서 MRI 검진을 받았다. 검진결과는 단순염증. 구단과 코칭스태프는 남은 시즌에서 무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엔트리에서 말소시키며 네일의 시즌을 그대로 마감했다.

지난해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끈 네일은 올해도 에이스다운 면모를 뽐내왔다. 27경기에서 8승 4패 164.1이닝 152탈삼진 평균자책점 2.25라는 호성적을 작성했다.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해 더 많은 승수를 챙기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네일이 시즌 마감 절차를 밟게 되면서 KIA의 가을야구 진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지난 14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수원FC와의 하나은행 K리그1 2025 29라운드 원정경기에서 광주FC 선수단이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상승세’ 광주FC, 서울 꺾고 5위 수성한다

21일 오후 7시 서울월드컵경기장서 맞대결  
승점 41점 리그 5위... 7위와 단 1점차 점진

광주FC가 서울을 상대로 파이널A권 굳히기를 위한 승점 사냥에 나선다.

광주는 오는 21일 오후 7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하나은행 K리그1 2025 30라운드 서울과의 원정 경기를 갖는다.

앞서 광주는 지난 14일 수원을 상대로 4-2 대승을 거두면서 2연승을 달성했다. 그 결과 광주는 11승 8무 10패 승점 41로 5위에 안착했다.

현재 K리그1은 압도적 선두 전북현대(20승 6무 3패 승점 66)를 제외하면 중하위권까지 격차가 없다.

광주는 리그 6위 강원FC(승점 38·득실차 -3)

와 승점차 없이 골득실차로 순위가 갈려있다. 위로는 리그 3위 대전하나시티즌(승점 45), 4위 포항스틸러스(승점 45)이 포진해 있지만 뒤집기는 쉽지 않다. 다만 아래로 리그 7위 FC서울(승점 40)이 1점차로 바짝 추격해오고 있어, 긴장을 놓칠 수 없다.

특히 리그 전 구단이 똑같이 29경기를 치른 가운데, 상·하위 스플릿이 갈리는 33라운드까지도 4경기밖에 남지 않았다.

모든 팀은 당연히 1부리그에 생존할 수 있는 6위 안에 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상·하위 스플릿이 정해지면 3라운드 로빈까지와는 달리 전혀 다른 파

이날 라운드 5경기가 펼쳐진다.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삼열음관 레이스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서울전은 ‘승점 6점짜리’ 매치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순위표상 직접적으로 맞붙아 있기에 광주가 서울을 잡고 승점 3점을 추가한다면 파이널A 진출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가능성은 충분하다. 최근 광주는 유독 서울을 상대로 높은 승률을 가져가며 ‘서울 킬러’로 불렸다. 2023년 9월 17일 30라운드 경기를 시작으로 무려 5연승을 달성했다.

거칠 것 없던 광주의 연승 가도는 올 시즌까지 이어가다 지난 6월 13일 18라운드에서 패하며 멈춰섰다. 선수단은 서울전의 좋은 기억을 떠올리며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또 주중 ACLC 경기를 소화하며 빠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서울에 비해 광주는 A매치 휴식이

를 보내며 재충전에 성공했다. 이어 재개된 수원 FC와의 경기에서 엄청난 에너지 레벨과 공격진의 화력 또한 보여줬다.

지난 수원FC와의 경기에서 거둔 4-2 승리는 2024년 3월 10일 강원전 이후 약 1년 6개월 만에 기록한 리그 4득점으로 오랜만에 다득점 경기를 펼쳤다.

더욱이 후반 교체 투입돼 2도움을 기록하며 전성기 못지않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신창무를 필두로 변준수, 조성권, 헤이스 등 팀의 주축들이 차례로 골 맛을 보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광주는 체계적인 우위를 등에 업고 서울 원정에서 승점 3점을 쟁긴다는 계획이다.

광주가 서울 킬러 면모를 되살리며 파이널A 진출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손흥민 ‘골·골·골’  
MLS 무대에서 첫 해트트릭

손흥민(LAFC)이 미국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진출 이후 첫 해트트릭을 터뜨리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 출신다운 모습을 뽐냈다.

손흥민은 18일(한국시간) 미국 유타주 샌디애리카 퍼스트 필드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원정 경기에서 레알 솔트레이크를 상대로 세 골을 몰아쳐 로스앤젤레스(LA) FC의 4-1 대승에 앞장섰다.

손흥민의 해트트릭은 MLS 데뷔 6경기 만에 터졌다. 토트넘(잉글랜드) 시절이던 2023년 이후 2년 만에 나온 프로 통산 7번째 해트트릭이기도 하다.

손흥민은 미국 진출 직후 MLS 6경기에서 5골 2도움을 올리며 LAFC의 간판선수다운 스타성을 발휘했다.

LAFC는 정규리그를 5경기 남겨 뒀다. 단순 계산이지만 남은 경기에서 4골 이상 더 넣을 걸로 기대할 수 있다.

한편 MLS 첫 해트트릭을 작성한 손흥민에게 축구 통계 전문 후스코어드닷컴은 평점 10을 매겼다. 풋몹은 평점 9.7, 소파스코어는 9.6을 줬다.

풋몹에 따르면 손흥민은 이날 슈팅 6개 중 4개를 유효슈팅으로 연결했고, 그중 3골을 터뜨리는 속도 높은 공격력을 선보였다.

MLS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손흥민을 ‘손세이셔널’, ‘한국 축구 레전드’라고 수식하며 미국 무대 첫 해트트릭을 조명했다.

연합뉴스



전남도청 여자 스쿼시팀은 최근 경북 김천종합스포츠타운 스쿼시장에서 열린 ‘2025 전국 실업스쿼시 선수권대회’ 여자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했다.

## 전남도청 스쿼시, 전국실업선수권 ‘준우승’

여자 단체전 결승서 인천체육회에 1-2 석패

전남도청 여자 스쿼시팀이 전국실업선수권 여자 준우승을 차지, 전남 스쿼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18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전남도청 여자 스쿼시팀은 최근 경북 김천종합스포츠타운 스쿼시장에서 열린 ‘2025 전국 실업스쿼시 선수권대회’ 여자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남·여 대표팀이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참가한 모의고사 무대로 수준 높은 기량으로 열린 경쟁을 펼쳤다.

양연수·배찬미·김가람·서효주가 팀을 이끈 출전한 전남도청은 인천체육회와의 결승전에서 양연수가 임화영을 상대로 3-1 승, 배찬미가 장예원에 2-3 패, 서효주가 송채원에 0-3으로 패했다. 그 결과 최종스코어 1-2로 역전패

를 당하며 대회를 준우승으로 마감했다. 양연수는 지난 8월 열린 코리아오픈 결승전에서 임화영에게 아쉽게 패배했으나, 이번 실업선수권대회에서는 승리를 거두며 설욕에 성공했다.

이번 대회 입상으로 전남도청은 한 달도 남지 않은 전국체전에서 상위 입상의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고영석 전남스쿼시연맹 회장은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선수들의 열정과 노력은 전남 스쿼시의 밝은 미래가 확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며 “다가오는 전국체전에서도 우수 성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도체육회 ‘일본스포츠마스터즈’서 한·일 스포츠 교류

24일까지 일본 에이메현서 8개 종목 158명 참가

전남도 생활체육인들이 일본 생활체육인들과 우정을 나눈다.

18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7일간 일본 에이메현에서 열리는 ‘2025 일본스포츠마스터즈’에서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배구, 볼링, 소프트테니스, 연식야구, 농구 등 총 8개 종목에 걸쳐 153명의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참가한다.

이번 한·일생활체육교류는 ‘이마바리 국제호텔’에서 일본스포츠협회와 주최하는 환영연을 시작으로 ‘2025 일본스포츠마스터즈’ 개최식 참석, 종목별 대회 출전, 에이메현 문화탐방과 환송연 등 순으로 진행된다.

대표 선수단은 경기 참가를 통해 건강한 스포츠 정신을 나누는 한편 공식 행사에도 참여해 일본 생활체육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양국 생활체육인간 우정과 화합의 시간을 가진다. 특히 테니스 종목에

서는 박영재(67)와 신주연(여·70) 선수가 최고령 참가자로 출전에 눈길을 끌고 있다.

한일생활체육교류는 1997년 시작돼 매년 한국과 일본의 생활체육 동호인 선수단이 상대국 생활체육대회에 상호 초청·파견되며 우정과 체육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파견은 지난 4월 목포에서 열린 ‘2025 전국 생활체육대축제’와 연계해 진행된 제29회 한일생활체육교류의 일환으로, 일본스포츠협회의 초청을 받아 전남도 생활체육인들이 참가한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이번 교류를 통해 전라남도 생활체육인들이 일본 동호인들과 스포츠를 매개로 우정을 나누고,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 국제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도민들에게 더 많은 체육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남도체육회는 오는 24일까지 7일간 일본 에이메현에서 열리는 ‘2025 일본스포츠마스터즈’에서 참가해 일본 생활체육인들과 우정을 나눈다.